디지털 시대… 금리·서비스 따라 떠도는 금리유목민 급증

KB금융지주 경영硏 보고서

금융상품 정보 수집 쉬워져
한 개 금융기관 충성도 하락
업계, 철새고객 방어 경쟁

더 유리한 금리나 서비스에 따라 여러 금융사를 옮겨다니는 '파이낸셜 노마드(Financial Nomad)'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디지털화로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정보를 수집하기 쉬워진 데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업체의 등장으로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탓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오현정 연구위원은 1일 '파이낸셜 노마드 현상과 노마드형 고객의 이동방지 사례'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시대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정보를 수집하기 쉬워지면서 한 개의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충성도는 하락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는 흐름은 확대됐다"며 "금리 , 서비스 등 혜택에 따라 여러 금융 기관을 옮겨 다니는 파이낸셜 노마드 현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교선택	금융회사	상품명	적립방식	세전 이자율	세후 이자율	세후 이자(예시)	최고 우대금리
☐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	코드K 자유적금	자유적립식	3.00%	2.54%	-	3.00%
☐	우리은행	스무살 우리 적금(장액자유)	정액적립식	2.70%	2.28%	126,773	3.80%
☐	우리은행	스무살 우리 적금(장액자유)	자유적립식	2.70%	2.28%	-	3.20%
☐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적금	자유적립식	2.60%	2.20%	-	2.60%
☐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자유적금	자유적립식	2.50%	2.12%	-	2.70%
☐	국민은행	KB 1코노미 스마트적금	정액적립식	2.45%	2.07%	115,035	3.05%
☐	국민은행	KB뱃코노미적금	정액적립식	2.45%	2.07%	115,035	3.05%
☐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	주거래우대 자유적금	자유적립식	2.45%	2.07%	-	3.05%
☐	광주은행	헤피라이프여행스케치적금2	정액적립식	2.40%	2.03%	112,687	2.70%
☐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적금	정액적립식	2.35%	1.99%	110,340	2.85%

파인의 은행 36개월 적금 조회현황. /파인 홈페이지

'노마드(Nomad)'는 정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삶의 방식을 가진 유목민이나 유랑자를 뜻한다. 파이낸셜 노마드는 금융권에서 금리, 서비스 등의 혜택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을 옮겨 다니는 소비자를 지칭한다.

권역을 불문하고 금융상품 비교는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에서는 예금, 적금, 펀드, 주택담보대출 등 전 금융권 상품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의 자산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는 디지털에 익숙한 밀레니얼세대 비율이 46%를 초과하며 금융상품을 개인조건에 맞게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오 연구위원은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확대 도입방안이나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의 제도도입은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고 쉬운 금융거래 환경을 제공하지만 경쟁심화로 고객의 이동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26주 적금은 출시 20일 만에 30만좌가 완판됐고, 10개월 만에 80만좌를 달성했다.

오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을 살려 만기달성 성취감과 재미요소를 가미한 인터넷 전용 적금상품 및 특정 고객군에게만 고금리를 주는 적금상품 등은 상품경쟁력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함으로써 파이낸셜노마드 현상을 확대시켰다"며 "모든 거래를 다 청산하고 금융사를 이동하기 보다는 금융거래 일부는 남긴 채 특정상품의 금리, 서비스 등의 혜택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을 옮겨 다니는 부분이탈(partial defection) 성향을 가지는 파이낸셜 노마드가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금융사 역시 이동통신사나 자동사보험과 같이 철새고객을 잡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졌다. 금융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상품·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이동을 방어함과 동시에 거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철새고객을 잡기 위한 경쟁은 시작됐다.

KB국민카드는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요금, 4대 사회보험료, 부동산임대료, 초·중·고 학교납입금 등 신용카드 연결 자동납부 이벤트를 하고 있으며, 카드서비스(할인·포인트)를 제공한다.

SC제일은행은 수시입출금 통장에 급여이체, 신용카드 결제계좌 지정, 자동이체 이체실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제공 한다. SK텔레콤은 핀테크업체 플랫폼 핀크, DGB대구은행과 함께 '적금 T 하이(High) 5'를 출시했으며 젊은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해 낼 수 있는 금융회사 플랫폼도 고객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동고객에 대한 사전감지로 이동방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종이 필요없는 전자청약시스템 선봬

NH농협생명, 농·축협 창구 특화

NH농협생명은 오는 2일 농·축협 창구에 특화된 '농축협 창구형 신(新)전자청약시스템'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농축협 창구형 신전자청약시스템은 창구직원이 사용하는 통합단말기와 연결된 터치모니터 화면을 통해 고객이 손쉽게 동의서 작성과 전자청약을 할 수 있는 농축협 창구에 특화된 새 전자청약 방식이다.

전자펜으로 고객이 직접 서명할 수 있는 터치모니터는 직원의 단말기와 연결돼 상품추천부터 전자서명까지 논스톱으로 할 수 있다.

또 상담 직원의 모니터와 같은 화면

을 제공하는 터치모니터를 통해 직원은 포인터 기능 등을 활용하고 중요내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고객은 설명을 들으며 서류 내용을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김희주 기자 hj89@

우리銀, '우리원뱅킹' 특화상품 출시

원 통장, 원 적금, 원 예금 등 5종

우리은행은 1일 새로운 모바일 통합플랫폼 '우리원(WON)뱅킹' 출시에 맞춰 우리원뱅킹에 최적화된 특화상품을 출시했다. 새로운 상품은 ▲원 통장(입출식) ▲원 적금 ▲원 예금 ▲원 신용대출 ▲모이면 금리가 올라가는 예금 등 5가지다.

원 통장은 개설만으로 스마트뱅킹 타행이체수수료, 우리은행 및 GS25편의점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수수료가 면제되는 입출식 통장이다. 우리원뱅킹과 우리은행 모바일웹 등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원 적금은 복잡한 우대조건 없이 최대 연 2.6%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기간은 1년, 월 저축한도는 50만원, 기본금리는 적립방식에 따라 정액적립식 연 2.4%, 자유적립식 연 2.3%가 제공된다. 우대금리 0.2%포인트는 원적금이 원통장을 통해 신규 가입되고, 만기에 해지된 경우 적용된다.

원 예금 역시 우리원뱅킹 전용상품이다. 가입기간은 1개월에서 36개월 이내로 월단위로 금액 제한없이 가입 가능하며, 기간에 따라 0.5%~1.05%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만기해지시 기본금리의 2배의 금리가 제공되는데, 가입기간 12개월의 경우 기본금리 0.95%의 2배인 연 1.9%의 금리가 제공된다.

모이면 금리가 올라가는 예금은 공동구매 상품으로, 모집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원 신용대출은 연소득 2000만원 이상, 동일 회사 6개월 이상 재직 조건을 충족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 우리원뱅킹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365일 신청 가능하다.

/홍민영 기자 hong93@

대형 저축은행, 상반기 장사 잘했다

6개사 전년비 평균 순익 35% ↑
SBI저축銀, 19% 증가 1089억원

저축은행 간 실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총자산 2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 6개사의 상반기 순이익 평균이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저축은행중앙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익은 10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했다. 지난 2분기에는 724억원의 순익을 거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SBI저축은행의 이 같은 호실적은 가계신용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SBI저축은행의 2분기 말 가계대출잔액은 3조21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늘면서 상반기 이자수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했다.

SBI저축은행의 상반기 총자산 규모는 8조1837억원으로,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에 비해 2조1701억원 더 많았다. 같은 기간 6조136억원의 총자산을 기록한 OK저축은행은 상반기 순이익 455억원을 기록하며 부동의 2위 자리를 유지했다.

3위권 경쟁은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투자저축은행이 개인 중금리 대출시장을 공략하며 상반기 총자산 규모를 3조94억원으로 늘린 가운데 웰컴저축은행도 상반기 총자산을 지난해보다 28%늘리며 공격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한 반면, 웰컴저축은행의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53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6.7% 증가해 3위권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요주의 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강화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대손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중금리 대출 시장을 둘러싼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수익성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금리 대출 이외에도 저축은행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중"이라며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과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영기자 hong93@

"1%대 안심전환 대출로 전환하세요"

금감원 Q&A

주택담보대출 부담 줄이기

Q. 몇 년 전 아파트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시 3.16% 변동금리 조건으로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아주 높은 금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환 부담이 적지 않네요.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A.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세요. 금리가 1.85~2.2% 수준이라 상환 부담이 덜하고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이 늘어날 걱정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3.16% 주택담보대출을 2.05%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 한 달에 16만원 이상 상환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이후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신청자 대상자는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인 1주택자입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면 0.1%포인트 금리 혜택이 있으니 꼭 활용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순서대로(선착순)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액이 공급규모(약 20조원)를 초과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나 1주택에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김희주 기자 hj89@